

- 주요 뉴스: 미국 백악관 이란 공격 여부는 2주 이내에 결정 협상 가능성도 상당한 수준
 - 미국 트럼프, 연준 파월 의장에 금리인하 촉구. Goldman Sachs는 대규모 부채 경고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진전 일부에서는 상호관세 거부감이 악화
 - 영란은행, 금리 동결.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 국제금융시장: 유럽은 중동 리스크 및 전일 연준의 금리동결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증시는 노예해방기념일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여행 관련주 약세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휴장에 따른 거래량 감소 이어지며 변동이 제한적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노예해방기념일로 휴장
독일은 전일 연준 파월 의장의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 언급 등으로 2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374.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6.7원, 0.25% 하락). 한국 CDS 강보합

	6/19일	6/18일	전일대비		6/19일	6/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5,980.9	-	미국	휴장	4.39%
	유럽	535.86	540.33	-0.83%	국채 금리 10y	독일	2.52%
	중국	3,362.1	3,388.8	-0.79%		2.50%	+2bp
	일본	38,488	38,885	-1.02%		영국	4.53%
	한국	2,977.7	2,972.2	+0.19%	CDS 5y	4.50%	+4bp
환율	달러지수	98.91	98.91	+0.00%		한국	28bp
	유로화	1.1495	1.1480	+0.13%		28bp	+0bp
	엔화	145.45	145.13	-0.22%	위험 지표	중국	53bp
	위안화	7.1878	7.1895	+0.02%		50bp	+3bp
	원화	1,380.2	1,369.4	-0.78%		EMBI+	-
						375	-
					VIX	22.17	20.14
							+10.08%
					WTI유	휴장	75.14
							-
				원자재	구리	휴장	485.3
							-
				금	3,370.9	3,369.4	+0.0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백악관, 이란 공격 여부는 2주 이내에 결정. 협상 가능성도 상당한 수준

-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란과 협상을 갖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언. 다만, 2주 이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에 핵 포기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
- 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 다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상태. 하지만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함과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
- 한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지도부 붕괴가 목적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해당 지역에 대피 경고가 이루어져 방사능 위험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
- 이란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미사일로 반격.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수십 기의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병원을 타격.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이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연준 파월 의장에 금리인하 촉구. Goldman Sachs는 대규모 부채 경고

-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가장 파괴적이고 어리석은 사람 중 하나라고 비난하면서 유럽은 이미 10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연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로 인해 미국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연준도 2.5%p의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Goldman Sachs는 하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법안이 시행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예산 적자가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진전. 일부에서는 상호관세 거부감이 약화

- EU의 돔브로프스키스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집중적인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전이 있다고 평가
-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EU 내에서 미국의 10% 상호관세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확산. 미국의 상호관세 요구를 피하기 어렵고, 다른 국가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 시 수출 경쟁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강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존재

-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드 갈로 위원은 ECB가 6개월 이내에 정책금리를 변경한다면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영란은행, 금리 동결.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

-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중동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하지만 9명의 위원들 가운데 3명의 위원은 고용 둔화를 이유로 금리인하를 주장. 베일리 총재도 금리가 점진적인 하락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시장에서는 8월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시진핑, 중동 휴전 촉구. 강대국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노력 강조

-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동 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 특히 국제사회는 물론 관련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캐나다 총리,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실패 시 철강에 대한 보복 관세도 조정할 방침

-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보복관세(현행 25%)를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적용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관망 기조,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경기침체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The Fed Is Waiting Until the Whites of Recession's Eyes)

- 5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 물가 부담이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음을 시사. 하지만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 한편, 3개월 연속 전월비 감소한 소매판매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는 점진적으로 증폭
- 이에, 트럼프 관세의 경제 효과가 구체화 되는 시점까지의 금리인하 결정 보류는 미국 경기침체를 유도할 우려. 특히 시장 예상대로 9월에 금리인하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는 이미 너무 늦은 조치일 가능성

■ 연준의 통화정책, 관세 영향 반영된 경제 지표 발표 이후 신속한 결정 가능 - 블룸버그

(The Fed Is Just as Confused as the Rest of Us)

- 연준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선택. 이는 트럼프 관세, 이민 및 재정정책,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 다만 관세의 물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지표들이 여름에 발표될 예정
- 만일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급증하면, 예상보다 강력한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고, 충격적인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될 경우 보다 장기간의 동결이 가능. 연준이 트럼프 무역정책을 정책결정 지연의 원인으로 언급할 수 있으나, 만일 지표들이 특정 방향의 신호를 보내면 신속한 대응이 요구

■ 유로존 경제, 국제 유가 상승에도 달러화 약세로 관련 충격이 제한 - Reuters

(Ailing dollar softens Europe's hit from any oil shock)

-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지난주 이후 달러화 기준 유가가 14% 상승했으나 유로화가 연초 이후 12% 상승한 덕분에 역내 관련 충격이 완화. 통상적으로 유가는 달러화로 표시되어 강달러 시기에는 석유 수입국에서 경제 충격이 발생하나 올해는 달러화 약세로 상이한 현상이 발생. 이러한 영향으로 ECB는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
- 특히 과거에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달러화 강세를 유발했으나 현재는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되면서 오히려 가치가 하락. 만일 10년간 지속되었던 달러화 강세 흐름의 반전이 이어진다면, 향후 유가 상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듦 전망

■ **미국 달러화,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 약화 우려에도 대체재는 부재 - Financial Times**

(Should we worry about Trump undermining the dollar?)

- 연초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가 10% 하락했고,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 이는 트럼프의 **弱달러** 정책, 신용등급 강등, 지속적인 재정적자 증가 전망 등에 기인. 투자자들은 달러화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이에 달러화 대체 통화로 유로화, 위안화, 스위스 프랑화 등이 거론되지만 한계점은 여전
- 특히 달러화 표시 금융시스템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편재성을 고려할 경우 여타 통화가 달러화 지위에 도전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소지. 한편 달러화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대체재가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경계할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국채 보유액, 관세 혼란에도 사상 최고치 근접 - Financial Times**

(Foreign Treasury holdings remain near record high despite tariff turmoil)

■ **기축통화로서 유로화의 달러화 대체,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이 반드시 필요 - Financial Times**

(European common debt is the way to topple the dollar)

■ **중동 국가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석유시설·정권 유지에 경계 태세 강화 - 블룸버그**

(Gulf States Caught Off Guard by Speed of Israel's Iran Att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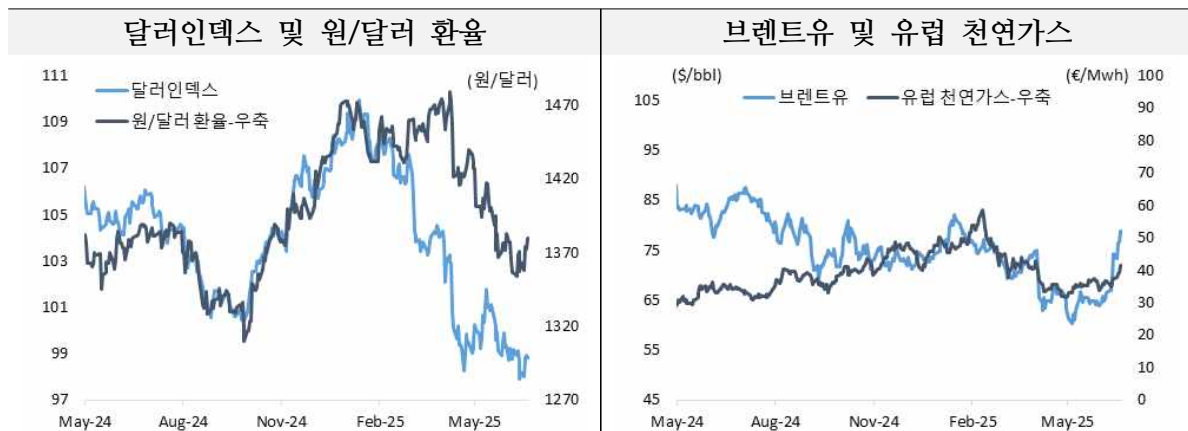
■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 투자, 관련 지역의 긴장 고조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 - 블룸버그**

(Mideast War Won't Shut Down the Silicon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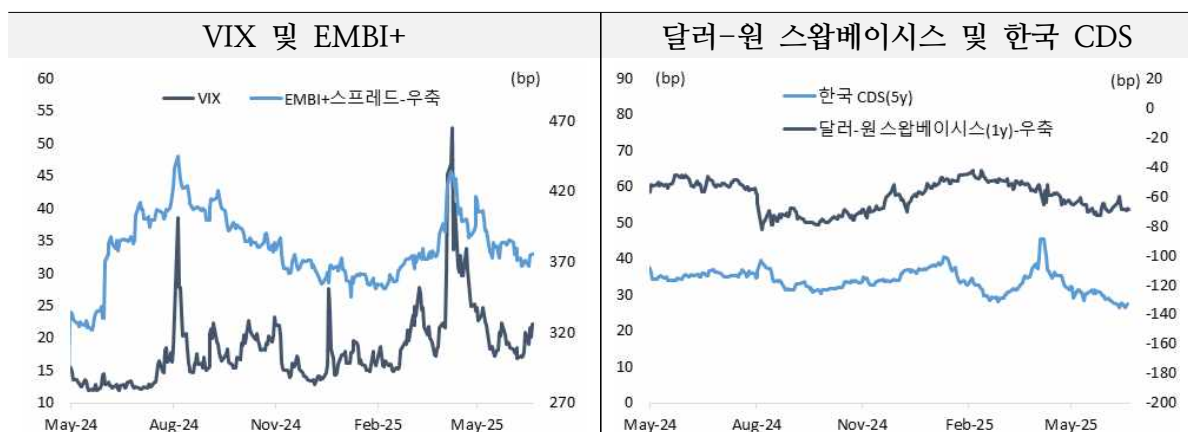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